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 개최

전주시·전북대·KAIST,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동향·기술 교류·발전방향 논의

미래먹거리로 각광 받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은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민선7기 핵심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교류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2022년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World Bio Innovation Forum, 이하 WBIF, 대표 채수찬)'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들과 차별화를 위해 미개척 분야인 디지털 치료제 △반려동물 헬스케어, 국내 바이오 헬스 관련 주요 이슈인 △비대면 진료의 3개 주제로 진행되며, 3일간 대표 주제별로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2개씩의 세션이 운영된다.

먼저 포럼 첫날인 8일에는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국내·외 대표기업인 Limbix, DTA, Welt, Life Semantics,

Naver와 식약처가 참여해 '디지털 치료제'의 최신 동향과 실제 운영 사례 등에 대해 토론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치매, 불면증, 우울증, ADHD 등의 질병을 예방·치료·관리하는 기술로, 매년 30%씩 시장이 커지면서 지난 2019년에는 시장 규모가 118조원까지 성장했고 오는 2026년에는 71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유망 분야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치료제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 주상단의 제도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해답을 이번 포럼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포럼 2일차인 9일에는 '반려동물 헬스케어'를 주제로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을 비롯해 Torigen, Vaxcell Bio, Labokin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 의약품에 관한 최신 동향

과 개발됐거나 또는 예정인 의약품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끝으로 오는 10일에는 글로벌 의료 기업인 Atrium Health와 국내 비대면 진료에 관한 현장감 있는 토론을 해줄 전라북도 의사회, 지역 병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한 포럼이 이어진다.

이번 2022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은 해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며, 포럼 전체 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북대학교의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에 주목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북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헬스 추진단을 구성했다.

그 결과 국내 유일의 중재의료기기 전문가인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융합센터의 후속 인프라로 메카노 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확보, 스

텐트로 대표되는 중재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성공했다.

시와 전북대는 또 전북대 구성원 일원에 스마트 바이오 융복합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건립하는 바이오 공모 사업에 도전해 현재 서류평가를 통과한 상태로,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든 도시들은 있지만 전주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춘 도시는 많지 않다"면서 "전북대학교와 KAIS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기관과 기업, 연구소 유치에도 힘써 세계 수준의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완성해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 '속도'

전주시,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연구·전시·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

전주시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정부가 지방예산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단체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타당성 및 효율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에 대해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및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는 내용의 투자심사 통과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향후 설계 전 사전절차를 밟아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말이면 시설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들어서면 새로운 전통문화원형 기반의 산업생태계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 관련 기업 유입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국비 228억 원 등 총사업비 32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48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설 내부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제작지원실 △콘텐츠 테스트 베드 △콘텐츠 체험·전시실 △콘텐츠 라이브 극장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으로 채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감도.

워지게 된다.

시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통해 남·북한 및 재외동포까지 아우르는 한민족 전통문화를 ICT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로 현재화한 디지털(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문화의 원형과 과학이 만나는 꼭짓점이 될 복합문화공간이 전주에 들어서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한국전통문화자원을 과학 기술과 접목해 독보적인 실감 콘텐츠로 구현함으로써 한민족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핵심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꽃심 전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상에 이한철 씨 '전주 기접놀이' 촬영 작품 등 총 35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수영장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특허를 뒀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로 매년 특허다.

공단은 특허청으로부터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결정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영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CCTV를 통해 이용객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에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이용객의 실시간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안전 보조 장치다. 안전관리자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해당 구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해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수영장에 입수한 이용객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입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수영장의 경우 시설 특성상 수영 미숙, 심정지 등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특히 심정지는 인구조급화해 따라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수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기접놀이의 역동성을 담은 사진이 전주정신 '꽃심'을 가장 잘 나타낸 사진으로 손꼽혔다.

전주시는 전주정신 '꽃심'의 인지도 및 호감도 향상을 위한 '꽃심 전주 사진 공모전' 개최결과 대상을 차지한 '전주 기접놀이' 촬영 작품 등 총 3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역사문화에 깃든 전주정신(대동, 풍류, 율곡, 창신)'을 주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전주정신을 찾아내 전주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전 접수 결과 전주를 비롯해 서울·경기, 경상, 충청, 전남 등 전국에서 경기전·한옥마을·덕진공원 등 전주시 주요 관광지와 전주 곳곳에서 전주정신을 찾아낸 작품 총 286점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대상은 '창신'을 주제로 한 '전주 기접놀이' 작품을 출품한 이한철 씨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풍류-전주의 첫마중길'을 출품한 전봉오 씨와 '대동-대동사 회'를 출품한 천승환 씨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과 최



'꽃심 전주' 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

우수상 50만원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됐다.

수상작은 전주시 블로그 및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전시되며, 향후 전주정신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료와 홍보물 제작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접수 마감 이후 사진작가와 사진기자,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사진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꽃심 공모전, 꽃심 이야기 나누기, 꽃심 한마당 등 시민참여를 확대해 전주정신 꽃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바로텍시너지, 국방기술개발 주관업체 선정

전주지역 국방벤처기업으로 '지속적인 G-포스 구현 가능한 구체형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 분야

전주지역 국방벤처기업이 첨단국방기술 개발기관으로 선정돼 대한민국의 가장 선도적인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성공했다.

시와 전북대는 또 전북대 구성원 일원에 스마트 바이오 융복합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건립하는 바이오 공모 사업에 도전해 현재 서류평가를 통과한 상태로,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든 도시들은 있지만 전주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춘 도시는 많지 않다"면서 "전북대학교와 KAIS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기관과 기업, 연구소 유치에도 힘써 세계 수준의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완성해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공군항공안전단, 경상국립대 항공우주 소프트웨어공학부, (주)엔젤릭스, (주)카프마이크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항공 시뮬레이터 관련 전문기업·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뮬레이터 개발에 나선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수요기업으로 전환돼 국내 시뮬레이터 장비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KT-1, FA-50, KF-21 등 항공기 수출과 연계한 훈련 장비의 해외 동반 수출의 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구 전주시 수송경제산업소산업과장은 "전주지역 국방벤처 협약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방분야 발전에 주도하며,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전주의 중소·벤처기업의 탄탄한 기반으로 뿌리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전라북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북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09년 개소 이후 총 73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과제 발굴 △국방기술 개발 △교육 및 판로 확보 등 사업과정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형 동네복지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정례회의 개최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더욱 따뜻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이웃들의 복지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정원선)는 지난 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3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최일선의 민관협력조직으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35개동 위원장을 비롯한 575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를 마친 박순철 삼천3동 전 위원장, 엄창섭 인후동 전 위원장, 이승석 우암동 전 위원장 등 30인에게 전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동네복지 우수사업 추진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특화사업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정원선)는 이날 민선 6·7기 동안 동네복지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주시민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와 꽃대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김물길 여행작가 초청 '전주 책 여행' 운영

전주 곳곳에 위치한 특화도서관을 여행하는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유명 작가들의 참여로 한층 풍성해지고 있다.

전주시는 8일 화가 겸 여행작가인 김물길 작가를 초청해 시민들과 함께 연화정도서관 등 전주 특화도서관을 돌아보고 강연도 듣는 전주 책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김물길 작가와 함께하는 책 여행은 유튜브, SNS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여행자와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기기를 원하는 오프라인 여행자들을 위해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전주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물길 작가는 여행으로 보고 느낀 이야기를 그림에 담은 화가 겸 여행작가로, 세계 46개 나라를 여행하며 400여 장의 그림을 모아 출간한 여행 에세이 '아트로드'와 국내 여행을 하며 만난 사람과 자연을 담아낸 '아트

로드, 한국을 탐다'를 출간한 유명 여행작가다. 김 작가는 또 화가로서도 2021 푸에스토 갤러리 개인전과 아트 프라이즈기념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림전' 등 총 16회의 전시를 진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책 여행에서 김물길 작가는 시민들의 여행 친구가 돼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다거여행자도서관 △전주의 정체성과 한국의 맛을 담은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분야별 아트북과 회귀 예술도서관 등이 비치된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등을 함께 여행했다.

이어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하고 그린 김물길 작가의 작품과 스케치 영상은 전주 도서관 여행 인스타그램과 전주 독서대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윤상 기자